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토대로 조망한 초고령사회

The Distant Future Prospect of Super-Aged Society through the Japanese Dankai Generation

황 재 영*

노인연구정보센터

Jae Young Hwang

Elderly Information Center

I. 단카이 세대의 과거

일본의 인구는 2010년도 1억 2,80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장래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60년도에는 거의 8,600만 명으로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어느 수준인가? 이미 200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그 뒤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노인인구 및 그 비율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폭발적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일본의 노인인구는 3,07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4.1%를 차지했는데, 1년 뒤인 2013년에는 3,1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0%였다. 불과 1년 만에 0.9%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노인인구가 3,400만 명으

로 전체인구의 26.7%를 차지했다. 그 뒤로도 노인인구는 서서히 증가해 2045년 무렵에는 약 3,8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이며, 그 후 감소하여 2060년에는 약 3,45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2; 總務省統計局, 2015).

그렇다면 왜 최근 3년간 노인인구 및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가? 답은 소위 ‘단카이(團塊)’ 세대와 관련된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으로부터 복귀한 사람들의 결혼이 성행했고, 머지않아 자녀 출산도 이어지면서 갑작스레 출생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다. 매년 약 200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가 1947년에서 1949년에는 단번에 연간 거의 270만 명까지 상승하여 도합 800만 명이 넘었다(厚生労働省, 2010).

* 교신저자,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황재영 박사 (e-mail: hwang7306@msn.com)

그 3년 동안의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칭하는데, ‘뭉치’나 ‘덩어리’라는 의미를 지닌 단카이는 인구분포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붙쭉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명칭이다(堺屋太一, 2013).

또 단카이라는 이름은 2000년 4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8개월 동안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던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1935년생)가 1976년부터 종합월간지 “現代”에 게재한 미래소설 ‘단카이의 세대’ 때문에 세간에 더 확실하게 알려졌다. 그 소설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1980년대 전반, 1980년대 후반, 1994년, 그리고 1999년도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로 구성한 것이었는데, 시대나 등장인물, 사건 등이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갑자기 수가 늘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를 주인공으로 다루었다는 점이었다(堺屋太一, 1976, 2013).

단카이 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확실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 늘어난 학생 수 때문에 치열한 입시경쟁을 경험했고, 졸업 후 취업 경쟁도 치열했고, 또 취업 후 관리직에 오르는 것도 다른 세대보다 더 어려웠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그들은 경쟁의식이 매우 강한 세대라고 이해되고 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청바지나 패스트푸드 등의 문화가 보편화되었고, 1964년에는 동경올림픽을 경험했고,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며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때 주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堺屋太一, 2013).

II. 단카이 세대의 현재

단카이 세대는 2006년도에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그 때까지 생존했던 자들은 690만 명 정도로 많았다. 노동시장에서도 관리직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위 직급에 해당된 사람들의 수가 급증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7년부터 그들의 정년퇴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정년퇴직연령은 1998년부터 당시까지만 해도 60세였다. 그들이 퇴직을 하게 된 시점을 전후로 인구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나타날 정도로 수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퇴직하게 되면서 사업체들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퇴직하게 되자, 그들에게 엄청난 퇴직금을 지불해야만 했던 재정적 위기였다.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융자산이 175조 엔에 이른다고 추산할 정도로 사업체는 부담이 컸다. 물론 금융회사들은 그 퇴직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호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세대단절 현상이 나타난 위기였다. 숙련된 근로자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맞는 위기를 말한다. 이러한 위기는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희망자 전원에게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012년에 마련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곧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 정년퇴직연령이 65세로 연장된 셈이다.

단카이 세대는 현재 일본 고령화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세대이다. 곧 일본의 인구 고령화 문제의 여파를 논할 때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이다. 일본 경제성장을 선도했던 그들이 노년기에도 보람을 느끼는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본 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녹록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장래인구추계를 다시 살펴보면, 2015년도의 80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8.0%이었지만, 그들이 80대가 되는 2030년에는 80세 이상의 인구도 전체인구의 13.5%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2).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에 의하면(内閣府, 2013), 단카이 세대의 경제적 주 수입원은 연금 53.4%, 급여 31.6%, 사업이나 부동산 수입 10.2%, 기타 4.8%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전체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 67.5%, 급여 18.3%, 사업이나 부동산 수입 7.6%, 기타가 6.6%였다. 전체 노인세대에 비해 단카이 세대는 연금의 비율이 더 낮지만, 급여소득비율이 훨씬 더 높은 편이며 또 사업 및 재산소득도 약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카이 세대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이며, 사업 및 재산소득 등의 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관한 질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나 하겠다는 비율이 전체 노인에서는 21%이었지만, 막 노년기에 접어든 단카이 세대는 거의 34%가 그렇게 답할 정도였다.

또 세대 당 금융자산은 다른 노년층보다 많은 편이었는데, 단카이 세대의 금융자산 평균액수가 2,100만엔을 넘었다. 세부적으로는 저축한 것이 없다는 응답 약 9.8%와 무응답 비율이 약 4.3%이었던 반면, 100만엔 미만이 약 9.8%, 100-500만엔이 약 22.0%, 500-1000만엔이 약 16.2%, 1,000-2,000만엔이 약 15.0%, 2,000-3,000만엔이 약 9.7%, 그리고 3,000만엔 이상이 약 13.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저축 목적을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현재의 저축 목적에 대한 답변으로 생활비 충당이 42.3%, 노후대비가 17.5%이었지만, 미래의 저축 목적에 대한 답변에서는 생활비 충당이 15.9%로 하향된 반면에 노후대비는 53.9%로 높아졌다(内閣府, 2013).

III. 단카이 세대의 미래

단카이 세대가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기대한 바처럼 미래의 주변 환경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60대가 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세계적인 불황이나 일본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금리 현상에 의해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산이 대부분 금융자산이라서 이자소득은 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단카이 세대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근래에도 난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단카이 세대가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 문제를 살펴보자. 단카이

세대는 2025년 적어도 75세가 되는데, 그 무렵 65세 이상의 인구가 3,600만 정도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이고, 그 중 2,000만 명 정도가 75세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다.¹⁾

우선 병구완(간병, 간호)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문제점이다. 2016년도 현재도 부족한 실정인데,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거나, 로봇이 병구완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거나, 병구완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2025년도에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또 병구완과 관련된 문제로 노인이 노인을 상대로 병구완하는 일(소위 老老케어)이나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다. 노인이 노인을 병구완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노인의 병구완은 젊은 사람이 병구완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크고 효성과도 낮다는 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또 2025년 이후에는 치매환자가 노인 5명 중 1명 정도로 급증하리라고 가정할 때 그 수가 700만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병구완을 해야 하는 사례수가 발생하거나 늘어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역시 2025년도에는 지금보다 사회보장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연금이나 의료, 병구완 들어가는 비용, 즉 사회보장비가 매년 증가해서 1년에 100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금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걱정도 뒤따르게 된다. 병구완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뇌졸중이나 뇌경색, 치매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일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문제점들이 줄어들게 된다.

IV. 단카이 세대를 보는 후속세대

끝으로 단카이 세대의 삶의 질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우선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후속세대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관점은 그들의 삶의 질을 더 크게 좌우해버릴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후속세대들은 일본의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단카이 세대를 고마움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단카이 세대가 퇴직 후 제2의 인생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골칫거리로 여겨짐을 지적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니케이비즈니스(日経ビジネス)’라는 주간지에서는 2009년 12월 9일 단카이 세대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단카이몬스터(団塊モンスター)라고 표현하면서 특집으로 다루었다. 몬스터(monster)란 괴물이나 괴물처럼 잔악무

1) ① 2016. 6. 27. 団塊世代が後期高齢者となる! 2025年問題とは!? [kaigonoblog.com > ホーム > 介護業界情報 - キャッシュ] & ② 2016. 4. 27. 2025年問題 | 少子高齢化社会の日本の将来はヤバイ!! [athome-kaigo.jp > HOME > 介護の基本 - キャッシュ]

도한 사람을 뜻하는데, 모아둔 돈이 많고, 퇴직으로 시간이 많고,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해서 지혜도 많다는 특성을 지닌 단카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너무 이기적이라고 걱정하면서도 혹평하는 표현이다.

그들을 혹평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 이기심이라는 성격적인 특성이다. 후속세대들은 그들을 자기방위본능이 강해서 남을 떨어뜨리고 간접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거나, 다른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상대하려는 것, 아랫사람에게는 반성을 요하면서도 자신은 반성하지 않는 것, 야단을 치는 일은 잘 하더라도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 등을 비꼬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직장생활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까지 비꼬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부인을 부하처럼 여겨 명령조로 대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다는 점이다. 가게 손님들 중에서도 귀찮게 하거나 성가신 사람이 대부분이 단카이 세대인데, 제품에 사소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소비자 상담코너에 전화를 걸어서 불평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한 회사의 대응이나 해명에 일단 납득하다가도 이야기가 옆길로 새어 회사의 경영방침까지 비약하여 급기야 책임자를 바꾸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쓸데없는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이다. 또 그 과정에서 여성이 책임자로 나오면 격노하고, 큰소리를 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혹평한다(藤原智美, 2009). 세대의 특성 차이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단카이 세대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2).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平成24年1月推計).
 総務省統計局 (2015). *人口の推移と将来人口*.
 内閣府 (2013). *平成25年版 高齢社会白書*.
 堺屋太一 (1976). *団塊の世代*. 東京: 請談社.
 堺屋太一 (2013). *団塊の秋*. 東京: 祥伝社.
 藤原智美 (2009). *暴走老人*. 東京: 文春文庫.
 厚生労働省 (2010). *人口動態統計年報 主要統計表* (第2表-1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

원고접수일: 2016. 09. 25.
 수정원고접수일: 2016. 10. 13.
 원고게재승인일: 2016. 11. 07.